동계올림픽, 스위스는 어떤 종목에 강한가.

스위스 여행 중 동계올림픽 종목에 도전해 볼 수 있어

스위스에서 기원한 종목, 봅슬레이
스키 묘기 배우며 자라는 스위스 아이들
여행 중 체험해 볼 수 있는 알파인 스키, 보드, 썰매
겨울 풍경 감상하는 최고의 방법, 크로스컨트리

곧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을 비롯한 빙상 종목 외에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스켈레톤, 봅슬레이와 같은 설상·썰매종목에서도 '메달 유망주'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지고 있다.

1928 년과 1948 년 2 회에 걸쳐 생모리츠(St. Moritz)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는 스위스는 어떤 종목에 강할까? 1924 년 샤모니올림픽부터 2014 년 소치올림픽까지 스위스가 동계올림픽에서 획득한 메달 수는 총 138 개다. 이 누적 수치를 통해 스위스의 유명 종목을 알아보고, 스위스를 여행하며 이 종목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알파인 스키(Alpine Skiing)
스위스가 가장 강한 종목은 두말할 필요 없이 알파인 스키다. 알파인 스키는 뒤꿈치가 고정된 바인딩을 장착한 스키를 타고 눈 덮인 슬로프를 내려오는 스포츠다. 실제로 스위스에서는 11 월 중순부터 스키 시즌이 시작되어 다음 해 5 월 초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스키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무척 많다. 사철 운영되는 스키장도 있는데, 겨울이면 스위스 곳곳에서 여행자들도 쉽게 스키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스위스의 스키장들은 여행자들이 보다 쉽게 스위스에서 알파인 스키를 체험해볼 수 있도록 '내 생애 첫 스키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베르비에(Verbier), 체르미트(Zermatt), 티틀리스(Titlis), 쉴트호른(Schilthorn)을 포함한 23 개의 스위스 스키 리조트에서 스키 장비, 반일 스키 패스, 스키 강습을 포함한 내 생애 첫 스키 체험 패키지를 CHF 150 부터 다양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2. 봅슬레이(Bobsleigh)
스위스에서 탄생한 경기인만큼 스위스 팀은 봅슬레이에도 강하다. 봅슬레이는 스위스의 스파 리조트, 생모리츠(St. Moritz)에서 탄생한 스포츠다. 1870 년대 처음 시작된 봅슬레이는 생모리츠의 5 성급 호텔, 쿨름 호텔(Hotel Kulm)의 주인장, 바트루트(Badrutt)가 영국인들을 상대로 '겨울에도 우리 호텔의 발코니에 앉아서 셔츠바람에 햇살을 즐기게 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행 경비를 몽땅 물어주겠다.'는 내기를 하면서 '겨울 관광'이 시작된 생모리츠의 관광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눈 속에서 관광객들을 위한 물건 수송을 위해 고안되었던 썰매가 바로 봅슬레이의 근원이다. 관광객들이 호기심에 이 썰매를 타고 다니다가 게임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바트루트는 투숙객들의 액티비티를 위해 세계 최초로 자연 얼음으로 만들어진 하프 파이프 트랙을 설계한다. 이 트랙은 생모리츠에서 열린 두 번의 동계 올림픽 때 실제로 사용하게 되기도 했는데, 쿨름 호텔에 여전히 보존되어 있어 인상적이다. 봅슬레이라는 경기 자체가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썰매로 대체해 체험해 볼 수 있다. 리기(Rigi), 슈토오스(Stoos), 필라투스(Pilatus)를 비롯한 곳곳에서 썰매를 탈 수 있다.

3. 스노보드(Snowboarding)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스키와 함께 스위스 젊은이들의 피를 끓게 만드는 종목이 바로 스노보드다. 체르마트(Zermatt)는 스위스인들은 물론 전 세계의 보더들에게 인기다. 17km 에 달하는 스위스에서 가장 긴 슬로프가 있고, 반복 구간 없이 12,000 미터까지 수직 하강할 수 있는 코스도 마련되어 있다. 무엇보다 마터호른을 바로 눈 앞에 두고 주변으로 4,000m 급 알프스 봉우리 47 개가 펼쳐진 장관 속에서 스키를 탄다는 데서 그 짜릿함을 찾아볼 수 있다. 마테호른 글래시어 파라다이스(Matterhorn Glacier Paradise)행 케이블카를 타고 찾아갈 수 있는 스노우파크에서는 프로페셔널을 위한 세 개의 레일과 세 개의 점프대, 초급자를 위한 12 개의 점프대와 12 개의 박스, 프로들을 위한 8 개의 레일을 갖춘 레일 가든이 마련되어 있어 보더들이 진을 치고 있다.

4. 스키점프(Ski Jumping)

영화 '국가대표'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스키점프는 스위스팀의 유력 종목 중 4 위를 차지한다.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이 스위스에서 스키를 타다 보면 꼬마들도 슬로프를 벗어나는 언덕 밑으로 거침없이 뛰어 내리는 장면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려 만든 스위스 스키장에서 스키점프에 근접한 묘기에 도전해 볼만도 하지만, 위험한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땐 스노우파크를 이용해 보자. 007 '여왕 폐하 대작전(On Her Majesty Secret Service)'의 로케이션이었던 쉴트호른(Schilthorn)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스카이라인 스노우파크(Skyline Snowpark)는 스릴 넘치는 장애물과 점프대를 설치해 두어 각종 묘기를 연마하는 프로들로 북적인다.

5. 크로스컨트리 스키(Cross Country)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눈 쌓인 들판을 달려 빠른 시간 내에 완주하는 경기다. 겨울이면 눈 덮인 들판이 끝없이 펼쳐지는 스위스에서 크로스컨트리는 여유있게 겨울 풍경을 둘러보는 방법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다. 특히, 크로스컨트리로 스위스의 겨울 공원을 둘러보면 좋다. 자연 공원(Naturpark)으로 지정된 스위스의 공원들은 넓은 지형 안에 순수한 자연을 고스란히 품고 있기 때문에, 눈꽃이 한알한알 살아 있는 겨울 풍경을 감상하기 최상이다. 스위스 서부에 있는 라 쇼드퐁(La Chaux-de-Fonds) 근교의 자연 공원 도웁스(Doubs)나, 동부 그라우뷘덴(Graubünden) 주에 있는 베베린(Beverin) 자연 공원, 베른(Bern) 근교에 있는 간트리쉬(Gantrisch) 자연 공원은 크로스컨트리로 만날 수 있는 감동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6. 프리스타일 스키(Freestyle Skiing)

프리스타일 스키는 선수들이 슬로프를 자유롭게 활강하면서 공중곡예를 통해 예술성을 겨루는 경기로 설원의 서커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선수들의 화려한 공중 기술이 돋보이는 경기로, 스위스 프리라이더들은 엥겔베르그(Engelberg)를 '자유의 산'이라 부른다. 서퍼로 치자면 하와이같은 존재다. 특히 엥겔베르그의 'Big 5'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설레고 긴장하게 만드는 코스다. 보통 5 일을 잡고 이 5 개의 악명높은 코스를 정복한다. 일반 스키도 즐길 수 있지만, 혹시라도 이 코스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로컬 가이드와 함께 투어에 나서야 한다. 크레바스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고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